

합격기
(2013년 5급공채(행시) 일반행정(전북) 합격)

항상 즐겁고 자신감있게
준비하신다면...



조 성 연

- 전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대 졸업
- 2013년 5급공채(행시) 일반행정(전북) 합격

I.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2013 행정고시 일반행정 전북지역 합격자 조성연입니다. 특별한 도움이 될 지 모르겠지만 합격수기를 통해 대략적인 시험에 대한 지식을 알려고자 합격수기를 씁니다. 주로 공부방법 위주로 합격수기를 쓰려고 하는데 공부를 한 사람들 모두 다 공부하는 방법들 다들 제 각 각 일테니 '이렇게 공부한 사람도 있구나.' 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II. 수험기간

2010년에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운종계 1차 시험을 합격해서 6월에 복무를 마치고서 곧바로 2차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처음 2차시험 점수는 경제학 5점, 행정법 7.5점 이었던게 기억이 나네요. 2010년 7월부터 행정고시라는 시험공부를 하기 시작했으니 2차 수험기간은 정확히 3년 가량 되는 것 같습니다.

2010년 2학기과 2011년 1학기는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지속했습니다. 학교에서 들어주는 순환강의를 들으면서 별도의 스터디는 없이 틈틈이 공부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초반에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하는 것은 추천해드리고 싶지 않네요.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하면 아무래도 학교공부와 고시공부 둘다에 집중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순환강의를 들으면서 예습, 복습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사실 듣는 것과 안듣는 것과 크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학교공부를

소홀히 할 수가 없어서 순환강의를 들으면서도 제대로 예습복습을 못해서 그런지 1년동안 공부를 했었지만 배운것은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학교가 많이 남으신 분들 혹은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하셔야겠다는 분들은 학교공부를 일정부분 포기하겠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한 것 같아요. 고시공부라는 게 둘 다 잡을 수 있을 정도로 만만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차라리 놀면서 학교생활에 충실하고 그 이후에 고시공부를 시작하시는 것이 좀 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보통 1학기에는 휴학을 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2학기에는 학교공부에 많이 시간을 쏟는 것 같은데 저도 크게 다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2011년 2학기부터는 학교를 휴학하고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2차 스터디도 시작하면서 제대로 된 고시공부를 시작했습니다. 2011년에는 1차 시험에 불합격해서 오히려 시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충실하게 2차 시험에 집중해서 준비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스터디는 학교 고시반을 통해서 알게 된 형들과 함께 꾸리게 되었습니다. 실력이 형편없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지만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과 스터디를 하면서 많이 배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12년에는 일반행정 서울지역을 지원했는데 1차를 합격해서 2차까지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학교 고시반에서 제일 잘하는 분들이 하고 계신 스터디에 들어가서 또 한번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2013년에는 2차 공부가 부족한 것 같다고 생각해서 일반행정 전북지역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한 결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Ⅲ. 공부 시간

고시공부에만 집중을 한 2011년 2학기에는 오전 8시에 출동을 해서 11시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공부하면 실제로 수업시간을 포함해서 공부하는 시간은 8시간~9시간 정도 되는데 지금와서 생각해보면 온전히 공부하는 시간이 10시간 정도는 되어야 합격이 좀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12년 1학기에는 오전 7시 30분에 출석을 해서 12시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스태우치로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수업시간과 스터디시간을 포함해서 하루에 12시간 정도는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2012년 2학기에는 학교를 다니면서 고시공부를 별로 준비하지는 않았지만 10월부터는 하루에 2~3시간 정도는 2차 시험 준비를 했습니다.

2013년에는 1차시험을 합격하고 3월에는 7시에 출석을 해서 11시 정도까지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4월에는 7시에 출석을 해서 11시 30분 정도까지 공부를 했고 5월에는 7시 30분~8시에 출석을 해서 12시~12시30분 정도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6월에는 7시30분에 출석을 해서 1시30분 정도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5월까지의 낮잠을 자지 않고 공부를 했고 6월부터는 점심을 먹고 10~20분정도 낮잠을 자고 공부를 했습니다.

IV. 공부방법

1. 1차 과목들

다른 사람들은 체계적으로 유형별로 정리도하고 공부도 따로 하고 했지만 저는 그냥 문제만 많이 풀어보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을 것 같네요. 하지만 매년 기출문제는 열심히 노력해서 오답정리도 하면서 푸는 방법을 통해서 내가 자주 범하는 실수들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했고 그 결과 실수를 해서 틀리는 문제들은 많이 줄어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실수만 줄이더라도 1차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많은 점수가 상승될 수 있기 때문에 오답정리는 어느정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2. 경제학

경제학은 결국 시험에서 주어진 문제를 풀어야하는 과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풀이 위주로 공부를 했습니다. 특별히 강사의 교재에 집중하기 보다는 교과서를 위주로 김진욱 강사의 경제학의 Zip과 황종휴 강사의 트리니티경제학으로 보충을 했습니다. 3순환 기간에는 수업을 들으면서 예습, 복습을 하면서 교과서를 읽으며 정리를 하는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미시경제학은 이준구 저를 통해서 입문을 해서 임봉욱 저, 김영산·왕규호 저를 보면서 공부를 하면서 좀 더 내용을 심화시켰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준구 저를 통해서 기본적인 개념을 익힌 뒤에 김영산·왕규호 저를 통해서 보다 깊은 논의를 파악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미시 경제학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를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를 푸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여러 강사님들의 좋은 문제모음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책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보신다면 실력이 향상되는데 좀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거시 경제학은 김경수·박대근 저를 통해서 입문을 해서 조장욱 저, 정운찬 저를 통해서 보충을 했습니다. 거시경제학은 미시경제학에 비해서 좀 더 풍부한 서술을 해야하는 만큼 보다 많은 교과서를 읽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시험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나오거나 정말 손대기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 부분은 거시경제학 부분인 것 같으니 교과서를 통해서 거시 경제학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여두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행정법

행정법은 1차적으로 홍정선 교수님의 교과서를 위주로 공부를 했습니다. 어느정도 교과서를 통하여 이론정리가 되고 나서부터는 강사들의 요약본 교과서를 읽으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또 행정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판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판례는 문구를 거의 그대로 외우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너무 긴 판례는 개인적으로 요약해서 판례 문구를 답안지에 썼습니다. 학자들의 주장이 담긴 학설들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결국 가장 명료하고 정확한 것은 판례라고 생각을 했고 판례를 위주로 답안의 결론을 내리는 방식으로 답안지를 구성했습니다.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로이기는 합니다

만 행정법은 특히나 꾸준히 답안지를 쓰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주어진 분량 내에 공부한 내용을 모두 넣는 것이 가장 힘들었는데 그런 부분을 준비하는 것은 답안지를 쓰는 것 밖에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 힘들더라도 꾸준히 답안지를 쓰는 노력을 해두시면 분량조절이라든지 논리적인 흐름이라든지 많은 부분에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행정학

행정학은 학자이름과 다양한 사례를 답안지에 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각 주제별로 활용이 가능한 학자이름을 넣고 주제별로 사례를 정리해두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유민봉 교수님의 한국행정학의 목차를 위주로 서브노트를 만들어서 박경효 선생님의 재미있는 행정학과 기타 여러 가지 다른 책에 나오는 자료나 찌라시 자료들을 보충하여 서브노트의 질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사례는 신문이나 잡지를 보면서 미리 어느정도 내용을 요약해두고 추후에 활용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특히 사례를 많이 알아두면 서론에서도 더 효과적으로 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문에서만 활용한다는 생각보다는 서론에서부터 사례를 적극 활용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5. 정치학

정치학은 가장 공부가 부족했던 과목이었던 것 같고 점수도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정치학 점수가 잘

나오지 않았던 이유는 기본적인 공부량 자체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과목처럼 정치학도 많은 암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과목과 균형을 맞춰서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Action 정치학'이라는 책을 보고 필요한 내용을 요약하면서 추가적인 논문 및 기타 다른 책들에 있는 내용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정원준 강사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정원준 강사님이 추천해주시는 책을 위주로 요약해서 서브노트를 만들어 나중에 시간이 얼마 없을 때에는 그런 부분들을 위주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6. 선택과목 : 지방행정론

지방행정론은 최봉기 교수님의 책을 위주로 공부를 했습니다. 행정학과 연계가 많이 되는 과목이고 행정법의 지방자치법에서도 어느 정도 연관을 가지는 과목이기 때문에 공부량에 대한 부담은 크지 않았습니다.

최봉기 교수님의 책을 위주로 공부를 하되 지방행정론은 요약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고 생각하여 7급 공무원을 위하여 요약을 해둔 책을 구입하여 시험을 앞두고서는 7급 책을 통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생각보다 요약이 잘 되어있고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7급책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공부가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7. 서브노트

2011년에 합격하신 선배님께서 반드시 서브노트를 만들어서 시험을 얼마 남기지 않은 기간에는 하루에 한 과목을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2012년에는 서브노트를 만들려고 시도를 했었지만 어떤 내용을 넣어야 할지 고민을 하던 끝에 만들기를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2013년에는 3순환이 시작하기 1주일 전부터 서브노트를 만들기 시작해서 각 과목의 3순환이 끝나기 1주일 전에는 서브노트를 완성시켰습니다. 그런 식으로 4순환 전까지 서브노트를 만들어서 4순환에는 중요한 부분을 체크하고 서브노트를 보면서 잘 모르겠는 부분은 교과서를 보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시험을 보는 중에도 미리 체크해둔 부분을 위주로 하루에 한 과목을 간단하게라도 읽으면서 시험을 친 결과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직접 손으로 써가면서 서브노트를 만들었는데 그 과정에서 공부가 꽤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주로 손으로 써가면서 공부를 하는 스타일이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서브노트를 만들면서 실력도 어느정도 늘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상당히 고생하며 서브노트를 만든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8. 면접준비

저는 지역적이었기 때문에 남들보다 좀 더 면접준비가 힘들었습니다. 제일 힘들었던 부분은 내가 지금 뭘 해야할지를 모른다는 점이었습니다. 3주라는 짧은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일들은 제한되어있다는 부분이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주었습니다. 2차가 끝난 다음 연수원에 있는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느정도 면접에 대한 정보를 알아두시는게 2차시

험을 합격한 이후에도 그 이후에 있을 면접을 좀 더 수월하게 준비를 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다들 그렇듯이 스터디를 통해서 매일 집단면접, 개별면접을 준비하면서 많은 도움을 얻었습니다. 다른 것보다 개별면접 준비에 조금 더 신경을 썼었는데 다양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했던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집단면접(토론)과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변별력이 크다는 느낌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집단면접 과정에서 격차가 상당히 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평균으로 사람들이 수렴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 못한다고 해서 크게 스트레스를 받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V. 나가며

너무 모든 부분들을 다 꼼꼼히 하시려고 하면 스트레스를 너무 받습니다. 조금은 여유를 가지고 대처하세요. 열심히 하시다보면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충분히 붙으실 수 있는 시험입니다. 너무 학자처럼 파고드시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여유를 갖고 공부를 하시는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차까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항상 즐겁고 자신감있게 준비하신다면 모두들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행정고시는 힘든 시험이고 공부를 하루하루가 무척 어려운 나날들이지만 '열심히'만 하신다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는 시험인 것 같습니다. 파이팅입니다.